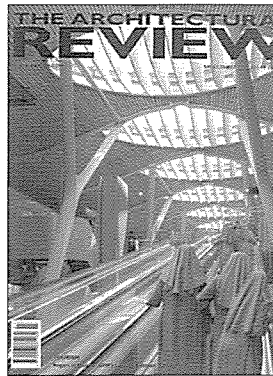


ARCHITECTURAL REVIEW

7월호

7월호의 주제는 'tourism'이다. '관광사업'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원어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이번 호가 담고 싶어 하는 주제가 현상과 사업 간의 관계에 대한 역전적 사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확대된 관광사업의 수요에 의해 건축된 건물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피드백을 연출하는가. 낯선 환경에서 타자로서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어떻게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식되고 접근되게 할 것인가. 이번호에 소개된 리처드 로저스와 슈헤이 엔도, 안드레아스 슈트라우스 등의 건축은 우리가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낯설음과의 조우에서, 창작자로서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만 넓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 Spanish Soft Machine

Barajas 신 공항 터미널/스페인, 마드리드  
/건축사: Richard Rogers Partnership

공항은 모든 곳이자 아무 장소도 아니다.(The airport is everywhere yet nowhere.)라는 말은 다소 진부하게 들리면서도 그간의 무미건조한 공항들의 디자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 사실 공

항은 디자인적 가능성이 풍부하지만 출입국 과정의 지난함과 딱딱함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되어왔다.

공항 자체의 장소성과 랜드마크적 특징들을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Barajas의 새로운 공항 터미널은 렌조 피아노의 간사이 공항, 노먼 포스터의 Chek Lap Kok, SOM의 Haj 터미널, 에로 사리넨의 JFK 공항 그리고 샤를 드골 공항의 계보에 첨부될 만한 성격의 것이다.

리처드 로저스의 새로운 공항 터미널은 스페인의 수도 임에도 바르셀로나를 위시한 바스크 지역에 비해 그간 위축되었던 마드리드의 정치적 야심과 건축적 아이디어가 적절히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 공항터미널로 인해 운송능력은 2천 5백만 명에서 7천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기존 터미널에서는 곤란했던 에어버스의 초대형 점보기도 수용 가능해졌다.

방문자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기는 상부구조의 디자인은 렌조 피아노가 간사이에서 이룬 '소프트머신' 개념에서 시작하여 조금 더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물 밑에서 파도가 치는 상부를 보는 듯한 지붕의 디자인은 황량한 스페인의 햇빛을 3개월의 개구부들을 통해 은은하게 유입하고 있으며, 하나하나 붙여진 중국산 대나무 클레딩은 공항의 거대 디자인에서 느끼기 어려운 수공예적 휴먼 스케일을 느끼게 해준다. 이러한 시도는 물결을 따라 반복적으로 집힌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거대한 구조물에 대한 매스감을 가볍게 분산시키는 내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붕구조를 지지하는 것은 Y 자형의 강구조물로 이 기둥들은 출입국 과정에 따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등으로 바뀌면서 비행과 착륙에 연관된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다.

한 때 하이테크라는 범주에 있는 건축사들이 이



Barajas 신 공항 터미널

런 유의미한 공항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기술 '이미지'의 현시에 멈추지 않고 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리처드 로저스의 이번 작품은 그런 측면에서라면 기술이 여전히 건축의 화두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사례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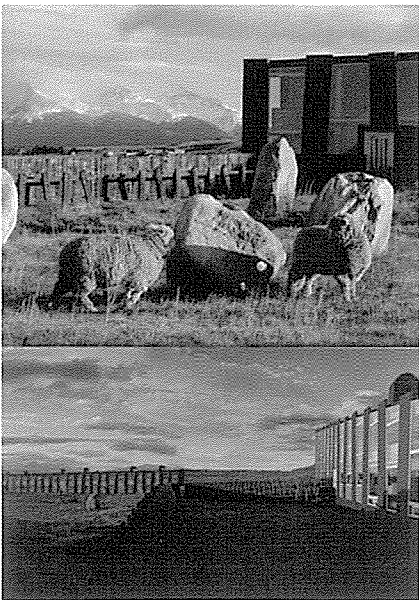
■ World end's Hotel

호텔/칠레 파타고니아/건축사 : German del Sol

이 건물은 이름만 보면 얼핏 독일을 연상케 하는 칠레 건축사 German del Sol(이하 GdS)의 주목할 만한 '오지 호텔 프로젝트' 중 세 번째의 작품이다. 파타고니아의 첫 작품과 칠레 북단의 아타카마 사막에서의 두 번째 작품을 거쳐 GdS은 Torres del Paine 국립공원의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Puerto Natal의 작은 어촌인 파타고니아로 돌아왔다.

여기서 그는 도시성의 비전을 우리가 소시적 읽어왔던 알폰스 도데의 별에서나 나올 것 같은 주변 환경과 건축적 전통을 통해 녹여내고 있다. 즉 목동이나 상인들이 하룻밤 거쳐 지나가는 자연환경 한 가운데 놓인 임시주거의 전통을 호텔의 형식으로 환유하고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농장 이미지를 적용하여 모던 건축에서의 시각적 특징들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건물은 크게 메인 건물 1동과 객실건물 2동이 T자 형태로 주변의 양떼나 초원, 바위, 산, 그리



호텔

고 하늘과 같은 랜드스케이프를 포섭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건물의 입면에 적용된 아스팔트 코팅의 플라이 우드의 배열방식과 중앙의 정원과 건물 사이를 가로지르는 고단의 연결로 양옆을 덮고 있는 목축의 방식은 각각 파타고니아 지역 양떼 목장의 우리나라 창고와 같은 이미지를 암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메인 빌딩은 호텔 직원들을 위한 공간과 창고, 투숙객을 위한 서비스 공간 즉 라운지와 리딩룸과 음악실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램프와 계단을 통해 상하층을 연결하는 리딩룸(메자닌)은 코르뷔제나 마이어에서 보이는 '시각적 산책'을 통해 고립속에서 강력하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이건물이 이룬 가장 중요한 성취는 자연 속에서 따로 또 같이 존재하면서 자연을 끌어당기거나 자연에 융합되는 방식이 아닌 '공존'하는 생활 태도의 하나로 랜드스케이프를 다루는 것에 대한 모범(생)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이다. 용도가 호텔이고 방문자들에게 새로움으로서의 낯설음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훌륭하고 지역의 정서를 담아내고 있다는 데에서, 이 건물은 세상의 끝에 있지만 여전히 눈길을 끄는 '자연과 인간'의 작품이다.

■ Tunnel Vison

베를린 중앙역(철도)/독일 베를린/건축사 : Von Gerkan Marg & Partner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베를린의 도시 계획가들은 철도를 통해 베를린을 유럽의 중심 교차지로 만들고자 고심했다. 그 이상은 독일의 통일에 따라 가능한 일이 되었으며, 2006년 월드컵 결승경기가 열린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의 리모



베를린 중앙역

델링으로 본란에 소개된 Von Gerkan에 의해 빛을 보게 되었다.

베를린 중앙역은 2차대전으로 인해 소실된 이전의 기차역이 있던 Lehrter Bahnhof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상의 동서로 지나가는 철도선과 새로 완성된 지하의 남북의 철도선, 그리고 주변의 Spree 강의 흐름을 통해 기하학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건물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간 3천만 명을 수송할 수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철도역을 만들어 냈다.

지상의 6개선은 고전적인 유리볼트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 유리들은 집광 패널로 전력수요의 2%를 담당하고 있다. 2개의 주 건물 등은 지하의 남북노선을 따라 형태가 만들어졌으며 중앙의 콘코스를 통해 연결되고 있다.

건물에서 느껴지는 첫인상은 '내부가 무척 밝다'라는 것인데 이는 기둥이 최소화된 콘코스와 플랫폼의 유리볼트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 유리 지붕들은 19세기의 수정궁이나 각종 박람회 건축, 역사건축에서 보이는 철과 유리로 구축되었던 방법과 대단히 유사한 감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베를린 중앙역사는 다이내믹한 구성에도 장중하고 고전적인 인상을 보다 우선하여 느끼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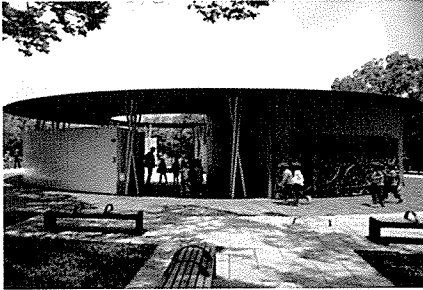
21세기의 기술로 변용된 19세기의 비전은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몇몇 부분에서 완결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운행 중인 최대길이의 기차에 맞추어 설계된 유리볼트의 길이는 100여 미터정도 감소하게 되었고, 강으로 된 볼트로 지지하도록 디자인된 지하의 천정 디자인은 미묘한 재료로 평평하게 마무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on Gerkan의 베를린 중앙역사는 기술과 역사성을 결합한 시도이며 차분한 외관 속에 극적 드라마를 숨기고 있는 매우 흥

미로운 작품이다. 또한 유럽에서의 철도역사가 현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명확히 규정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첨언인 것이다.

### ■ How Convenient

오사카 성 위생시설/일본 오사카/건축사: 슈헤이 엔도



오사카 성 위생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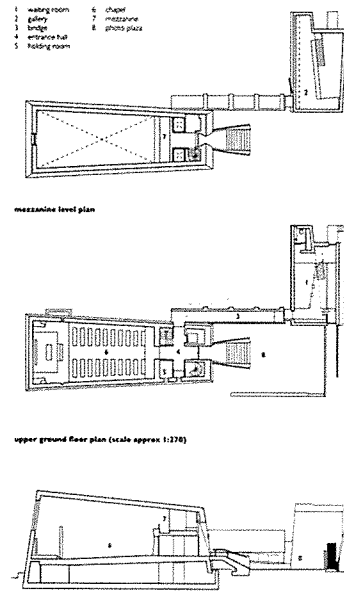
봄이면 벚꽃구경으로 유명한 오사카 성 공원 외곽에 슈헤이 엔도가 세 개의 파빌리온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방문자나 공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한 위생시설이다. 특징적으로 각각의 파빌리온은 'halfecture OR', 'halfecture OO', 'halfecture OJ' 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세 개를 합치면 하나만, 하나의 architecture 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물결진 철판이 그의 아이콘이었다면 여기서 그는 두께 18mm의 코르텐강을 사용하여 재료의 구조적 가능성과 중력에 의한 효과를 실험하고 있다.

Halfecture OR은 그중 가장 중요한 시설로 카페와 남, 여 장애인용 화장실을 가지고 있다. 상부의 고리형태의 코르텐강 지붕은 가느다란 3개의 봉이 간격을 유지한 채 꼬인 형상을 하고 있는 기둥에 의해 지지되며 비나 눈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내부로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 다른 두 개의 시설은 지붕이 대각선으로 접혀 있거나(folded; Halfecture OJ) 비틀려(deflected; Halfecture OO)있다.

여행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중 화장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벤트화 하여 자유로운 방식으로 형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일본 건축 뿐 아니라 일본적인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사카 성에서의 여행과 경험의 질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 ■ Running Rings

Aktis Wedding Chaple/일본 교토/건축사: Amorphe Takeyama & Associates



Aktis Wedding Cha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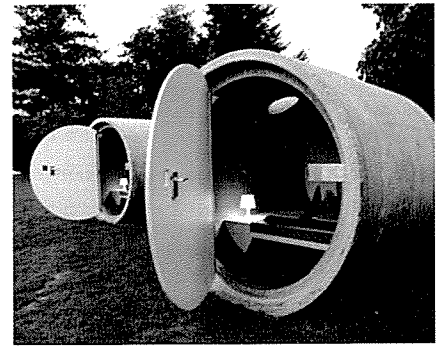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결혼은 돈이 많이 드나보다. 결혼단가를 낮추고 결혼 횟수를 높이면서도 각 결혼식이 교차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제안이 교토의 한 웨딩 채플에서 시도 되었다. 즉 컨베이어벨트위에 결혼식을 올려 태우는 것이다. 키요시 세이 타케야마가 이끄는 Amorphe Takeyama & Associate가 디자인 한 이 웨딩채플은 교토의 한 호텔의 일부로서 하루에 8건의 결혼식을 수행할 수 있고, 최대 3건의 결혼식이 서로 부딪힘 없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호텔에 근접하여 웨딩 채플은 크게 대기실과 행진을 위한 브릿지 그리고 예배당으로 구성된다. 공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최소한 두 시간 정도를 지하의 신부를 위한 공간에서 치장을 하고, 신부와 그의 아버지는 입구의 신부대기실에서 방문객들이 독립된 대기실에 모이는 것을 기다린다. 그 후 손님들은 행진을 위한 브릿지를 지나 예배당의 후면으로 이동을 하여 참석하면, 신랑과 신랑이 입장하여 20분간의 짝막한 결혼식을 하게 된다. 결혼식 후에 신랑과 신부가 다시 작은 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발코니쪽으로 나오면 친구들은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사진사는 사진을 찍는다. 이들에게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진행 자체는 우리에게도 그리 특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공된 서구의 팬터지 속에 결혼의식을 '소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시도는 서구의 형식 안에서도 나름대로 내화된 모던한 시각을 제시한다. 어떤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떠나서 자생적인 형태와 형식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은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하고 또한 부러운 것이다.

### ■ Tubular Troglodytes

Daspark Hotel/오스트리아 린츠(Linz)/ 건축사: Andreas Strauss



Daspark Hot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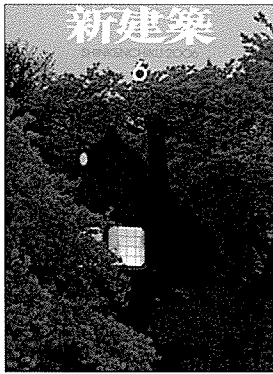
제목을 번역하자면 튜브에 사는 혈거인 정도가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와 왈츠 하면 생각나는 인물과 동일한 성을 가진 Andreas Strauss는 기성품 형태의 콘크리트 실린더를 경비가 충분하지 않은 이들을 위한 최소 거주 호텔로 제안하고 있다. 외부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숫자 키로 되어 있는 잠금장치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평상, 채광과 환기를 위한 개구부가 이 '호텔' 구성의 전부이다. 식사와 위생에 관련된 시설은 가까운 공공시설을 이용해야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피난 구호를 위한 주거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거주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공적 영역안으로 넘겨지고 개인의 유동성이 극대화 된 상태에서의 궁극적인 호텔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성만을 남긴 채 나머지를 외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오늘날의 도시적 상황만이 이런 호텔의 제안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안드레아 슈트라우스의 제안은 시대를 비치는 거울로서, 그리고 그 방향을 가속화시키는 시도로서 유의미하다.

(글 / 김훈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 인천 전문대 출강)

## 新建築

6월호

이번 호는 일련의 저층형 학교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는 코지마 카즈히로가 설계한 치바시립 미하마우타세 소학교, 아오키 준이 루이뷔통 프로젝트 이후 새로운 그의 표현언어로 실험하고 있는 링구조를 사용한 백색의 교회 등이 소개되었다. 동경대학교수 오오노 히데토시가 축소되어져 가는 도시의 미래개발전략을 제안한 「fiber city 東京 2050」 또한 눈여겨 볼 기사이다.



### ■ 치바시립 미하마우타세(美浜打瀬)소학교 - 설계 : 코지마 카즈히로+아카마츠 카즈코/CAT

「미하마우타세 소학교」는 일본 치바시의 유명한 신도십 마쿠하리에 세워진 3번째 오픈스쿨 형식의 소학교이다. 이 지역 최초의 소학교인 「치바시립 우타세소학교」(1995년)도 코지마 카즈히

로의 설계로 10년전에 이루어져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규모는 24교실, 아동수 960명을 상정했다. 이 학교는 이미 「우타세 소학교」에서 선보였으며 이 지역 소학교의 특색인 저층가구형(底層街區型)으로 이루어졌다. 저층가구형 학교는 이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형식이다. 또한 가로에 개방적이고 접지성이 높으며, 음환경, 온열환경이 우수하고 다양한 학습형태의 구현과 장래 시설의 전용(轉用)이 용이한 교사를 목표로 하였다. 건물은 마쿠하리신도십에 계획된 두 줄기의 그린벨트에 면하고 있는데, 북측의 교정이 그린벨트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교사를 부지 남측에 배치시켰다. 모든 교실이 명확한 경계 없이 오픈스페이스로 개방되어 있지만 낮은 원형의 벽으로 둘러싸인 벤치와 같이 소그룹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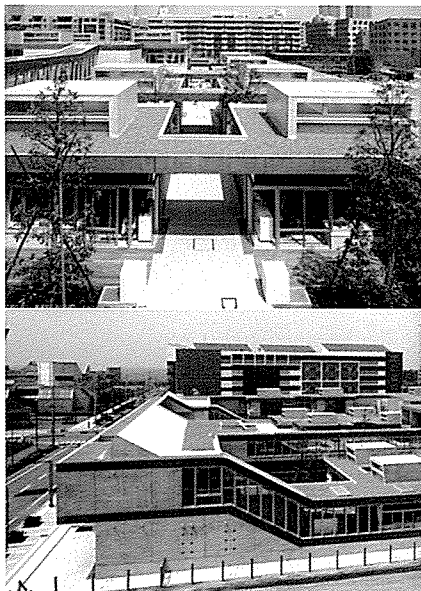
음환경측면에서의 배러로는 슬래브천장 전체에 리브 형태의 흡음면을 부착하여 저음역대와 고음역대 모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교실들 사이에는 유리 차음벽을 설치해 시각적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하였고, 위크스페이스에는 흡음벽을 설치해 소음이 교실까지 전달되기 힘들도록 하였다. 온열환경 측면에서는 모든 교실에 하이사이드라이트(고측창)를 설치하고 이곳에 통풍창을 마련해 교실창을 함께 개방하면 여름철에 자연스런 통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난방은 팬코일 유니트로부터 바닥 밑으로 보내지는 온풍이 패러미터존을 통해

뿜어져 나오도록 해 교실이 균일하게 덥혀지도록 하였다.

### ■ 백색의 교회 - 설계 : 아오키 준 건축실 계사무소

백색의 교회는 아오키 준이 구조기술자 오카 무라와 함께 개발한 「링구조체」를 이용해 호텔 하얏트 리젠시 오오사카내에 설계한 웨딩용 채플이다. 80평 남짓의 작은 채플이지만 아오키 준이 개발한 링구조체는 단연 눈길을 끈다. 링구조체는 정사면체의 모서리 부분을 절단한 모양의 「절정(切頂)정사면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절정정사면체는 모서리부분이 절단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사면체와는 달리 수직으로 쌓아갈 수 있다. 절정정사면체는 4개의 육각형이 모여 만들어 지는데, 이 육각형에 내접하는 원 4를 이용해 만든 것이 링구조체의 기본 유니트이다. 4개의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정 정사면체와 달리 수평방향으로도 접합이 가능하다. 이 링구조를 이용해 만든 벽면은 전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링이 쌓여 벽체를 형성한 모습으로 보이며, 그물망과 같은 모습이어서 빛과 시선에 대한 투과와 차단을 동시에 하고 있다. 링구조체는 외부에서 훌륭한 의장효과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내부에서도 그 자체가 의장요소로 활용된다. 백색의 교회에서는 예배공간을 둘러싼 4면의 벽 중 2면을 이 링구조체 벽으로 완성했다.

링구조체는 아오키 준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치바시립 미하마우타세(美浜打瀬)소학교



백색의 교회1



백색의 교회2

여러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링구조체를 가장 처음 적용해 설계한 것은 역사(驛舎) 프로젝트였는데 아쉽게도 이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두 번째 시도는 현상설계로 진행된 '자이안츠 코즈웨이(Giant's Causeway) 프로젝트'였으나 이 역시 가작에 머물러 실현을 이루지는 못했다. 자이안츠 코즈웨이 프로젝트는 북아일랜드 해안선에 8킬로에 걸쳐 이어지는 주상절리대인 자이안츠 코즈웨이의 방문자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링구조체로 만들어진 거대한 박스를 제안했다. 이번 백색의 교회는 링구조체의 최초 실현작인 셈이다. 그러나 링구조체는 아직 실험단계이다. 이 구조는 중력, 지진력, 풍압 등의 응력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원래 고안된 구조는 이론상 이 모든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현물(現物)을 통한 시공성시험이나 구조시험을 충분히 거쳐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백색의 교회에서는 지진력은 부담시키지 않는 것으로 했다.

링구조체는 아오키 준의 '볼륨'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되었다. 고체의 껍질(皮)을 매스라 하고 액체나 기체의 피를 볼륨이라고 했을 때 볼륨은 실제로 현존한다기 보다는 우리의 머리 속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존재이다. 액체나 기체가 껍이 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는 용기가 필요하고, 이와 같은 용기 없이는 볼륨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오키 준은 이와 같은 볼륨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만들어 보이고 싶어 했다. 먼저 '볼륨이란 우리를 둘러싼 보통의 공기와는 다른 성질의 공기 덩어리'란 생각을 갖고 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작업부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개념이 반영된 첫 작품은 그의 일련의 루이비통 샵 프로젝트 중 첫 작품인 '루이비통 나고야(1999년)'였다. 그의 루이비통 샵 건물들에서는 격자무늬가 서로 중첩되어 일루전을 일으키는 이중외피를 이용해 볼륨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현상학적(phenomenal) 볼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실험하고 있는 링구조는 보다 볼륨 자체를 구축해 보려는 시도이다. 문자 그대로의(literal) 볼륨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것, 즉 공간과 그것을 담는 용기가 융합된 형태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이다. 많은 반향을 일으켰던 루이비통 프로젝트들과 같이 아오키 준의 링구조

를 이용한 일련의 작품들이 실현되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 ■ Fiber City 東京 2050 - 도쿄대학 오노히데토시 연구실



Fiber City 東京 2050

2050년 도쿄의 모습은 어떠할까? 아니 어떻게 변모되어야 하는가? 최근 일본 도시계획분야의 이슈는 '컴팩트 시티'의 구현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구의 감소를 겪고, 모든 지방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수도권은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줄어드는 인구 속에 도시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심을 이전부터 해왔다. 총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 인구의 3/4으로 줄어든다는 예측도 나와 있다. 팽창해 갔던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 경우, 어떻게 도시의 슬럼화를 막으면서 도시의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가 일본의 컴팩트 시티가 모색하고 있는 방향이

다. 이번 'FIBER CITY 東京 2050'은 축소되어져 가는 도시를 위한 디자인 전략이다. 이와 같은 도시의 축소를 도쿄의 도시구조 및 환경 개선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디자인 전략을 짜게 된 배경이다. 파이버 시티는 4개의 디자인 전략을 내 놓았다. Green Finger, Green Partition, Green Web, Urban Wrinkle의 4가지 전략이다. 구상의 큰 틀은 인구의 감소로 필요 없게 되는 도시의 면적을 녹지로 치환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로 개조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선을 따라 역세권을 중심으로 시가지를 조성함으로써 결국 도시의 중심으로부터 손가락 모양으로 뻗어가는 선형의 시가지가 생기는데, 이들 사이사이에 녹지가 침투하는 형상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Green Finger의 개념이다. 좀더 작은 형태의 녹지의 띠는 도시 곳곳에 마련된다. 주거지역에 마련되는 이 녹색의 띠는 도시민에게는 휴식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화재시 방화벽의 역할을 겸한다. 대지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경험해 온 일본 도시계획의 특징이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녹지의 띠는 도심지에 이르러서는 대규모 공원을 중심으로 녹지의 띠가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녹지의 그물망 형태를 취한다. 이는 도심의 기존 교통망인 수도고속도로를 긴급구조도로와 녹도로 전환한 것으로 Green Web의 개념이다. Urban Wrinkle은 도시의 구역별 특색을 살린 선형(線型)의 명소를 만들자는 것이다. Fiber City는 '컴팩트한 대도시'라는 다소 모순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이다. 이 같은 제안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또한 행하고 있어 앞으로 도쿄의 도시계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㉞